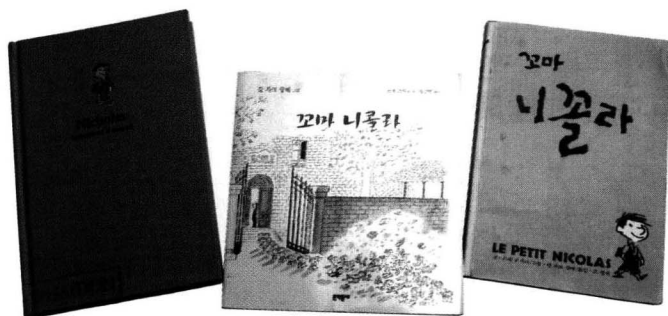


《꼬마 니콜라》

옛 친구들의 달라진 이름을 마주하며 느끼는 묘한 기분

아서 클라크의 SF <라마와의 랑데부>는 '라마' 라는 이름의 괴 우주물체가 지구에 근접하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왜 하필 이름이 '라마' 나 하면, 그때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행성이나 혜성에는 그리스나 로마의 신 이름을 붙여주는 게 관례였는데, 나중에는 붙일 만한 이름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힌두교의 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하긴 탁월한 대안이다. 힌두교에는 수천, 수만, 수억, 또는 그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하니까).

글_박중서



최근 몇 년간 이런저런 신생 출판사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라마'에 관한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된다. 가끔은 서평용 증정도서를 다섯 권 받으면, 다섯 권 모두 처음 듣는 출판사에서 펴낸 책인 경우도 있다. 이름 들도 글씨,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씩,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아서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 가만 보면 이제 웬만한 동물, 식물, 광물, 인명, 지명 등등 그럴싸한 이름은 모조리 출판계에 포진한 상황이 아닐까 싶다.(물론 합성어로 가면 좀 여유가 있다. 가령 '문학'이란 말만 해도 그 뒤에 '생각' 이니 '세상' 이니 '공책' 이니 단어만 갈아붙이면 제법 다양한 조합이 나오니까. 물론 독자야 종종 헛갈리겠지만.)

이 책은 무엇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간혹 출판사 이름 중에도 매우 기발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 기억 속에서 그중 최고를 꼽으라면 단연 '태멘'이란 곳이 아닐까 싶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만든 회사인지 발칙발랄하게도 성서 맨 처음에 나오는 '태초에 와 맨 뒤에 나오는 '아멘'에서 한 글자씩 따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도 특이하고, 영화계와도 관련이 있는지 태멘극장이란 곳(나중에는 푸른극장으로 이름을 바꿔 초대권 명목의 할인표를 왕창왕창 뿌리기도 했던)을 운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모양인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무슨 기획사와 건설회사 등등 동명이종의 업체만 몇 군데 나오고, 또 지금 한참 잘 나가는 모 영화홍보회사 대표에 관한 기사에서 그가 한때 그곳 편집자를 지냈다는 정도로만 뉴스에 언급되기도 한다.

지금은 이렇게 잊혀진 출판사이지만 그래도 한때 여기서 내던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꼬마 니콜라》였다. 태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마 이 책은 알 거다. 물론 저작권 개념이 없었던 당시에는 여러 다른 출판사에서 중복출간 되기도 했는데, 원조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가장 많이 팔린 것은 태멘의 《꼬마 니콜라》였다.(하지만 교보문

고도 그 사실을 망각했는지, 수년 전 역대 베스트셀러 전시 행사장에는 태멘 판이 아니라 문예출판사 판 《꼬마 니콜라》가 놓여 있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연 이 책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르네 고시니의 글은 재미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배꼽을 잡을 정도는 아니다. 장 자크 상삐의 그림은 신선하긴 했지만 삽화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사실 제목이 《꼬마 니콜라》라고 되어 있고, 주인공 역시 니콜라로 되어 있지만, 주인공의 활약은 사실 이 책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주인공은 구제불능 말썽장이라도, 거짓말쟁이에 싸움꾼도, 문제아에 가출소년도 아니어서 하다못해 '나두수'에 비견해도 그냥 평범한 소년이다. 과연 이 책의 그 무엇이 당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지녔던 것일까?

정체불명의 단어들과 만나는 즐거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1981년 태멘 판 《꼬마 니콜라》는 초판본이 아니다. 총 5권으로 나온 시리즈 가운데 한창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처음 두 권을 사서 갖고 있다가 잃어버렸고, 지금 갖고 있는 건 수년 전에 어느 헌책방에서 운 좋게 구입한 것이다. 세월의 흔적으로 책등은 하얗게 바랬지만 초당 시절 심심할 때마다 읽고, 읽고, 또 읽은 책이어서 내용은 지금도 훤히 꿰고 있다. 난생 처음으로 '크로와상'이라든가 '오데꼬롱' 같은 정체불명의 단어와 맞닥트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살살이 읽었다. 어떤 면에서는 맨 뒤의 근간목록이 더욱 흥미로웠다. 브룩 실즈의 사진과 함께 실린 영화 <끝없는 사랑> 원작소설 소개글에 나온 "너무 사랑한다는 죄"라는 구절, 그리고 영화감독 이장호의 자서전 소개글에 나온 '성욕'이란 미지의 단어를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랬던 《꼬마 니콜라》가 1999년에 새로 번역되어 나왔다. 거의 20년 만에 다시 나온 책에서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는 일부 등장인물의 이름이었다. 외드, 조프루아, 끌로페르, 알쎬스뜨, 아냥 등 반가운 옛 친구들

의 이름은 그대로이건만, 어째서인지 '쵸아심'은 '쵸아생'이 되었고, '뤼피'는 '뤼피스'가, '맥스'는 '맥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예전 번역본은 프랑스어 전공자가 옮긴 게 아니었던 말인가? 그래도 어쨌라, 지금까지도 내겐 쵸아생과 뫼피스보다는 어릴 적 친구 '쵸아심'과 '뤼피'가 더 익숙한 것들. 그 세월 동안 고시니에 비해 상삐는 국내에서 더욱 명성을 얻었다. 이제 《꼬마 니콜라》는 "고시니와 상삐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상삐의 작품"으로 통할는지 모른다.(부디 <아스테릭스>의 분발을 바라는 바이다.)

기발하다고 해야 할지, 우습다고 해야 할지

작년엔가, 영국에 다녀 온 한 선배로부터 책 선물을 받았다. 《꼬마 니콜라》 영어판이었다. 이미 우리말로 나온 책을 뭐 하러 주나 싶어 시큰둥했는데, 막상 받아놓고 보니 여기서서 내 어릴 적 옛 친구들의 이름을 뭇로 해 놓았나 문득 궁금해졌다. 철자는 그대로였지만 '니콜라'는 영어식으로 '니콜라스'라고 읽어야 할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뤼피스'는 '루피스', '외드'는 '에디', '조프루아'는 '제프리'가 되어 있었다. 아예 이름이 바뀐 경우도 있었다. 애제자 '아냥'은 '커스버트', 먹보 '알쎬스뜨'는 '알렉'이 되어 있었다.

가장 큰 차이는 드조드조였다. 프랑스가 무대인 이 소설에는 영국인 전학생이 한 명 등장하는데, 전학 첫날부터 친구들이 쓰는 온갖 욕설만 배워 선생님을 기겁하게 만든다. 태멘 판에서는 '조르주 막 앵또슈'라고, 문학동네 판에서는 '조지 맥킨토시'라고 했다.(어째서 앞에서는 프랑스인 이름도 영어식으로 읽고, 뒤에서는 영어 이름도 프랑스식으로 읽은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영어' 판은 그 '영국인' 학생을 누구라고 해 놓았을까? 정답은 독일인 요헨 판 테어 펠데(Jochen van der Velde)였다. 기발하다고 해야 할지, 우습다고 해야 할지. **한글**

박중서 님은 에이전시와 출판사 등 출판계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지금은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역서로 <젠틀 매드니스>(공역)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등이 있다.